

강좌 제목 - 단순한 나의 시 창작법

■ 강좌 개요 - 137억 년의 기록, 몸.

■ 강좌 소개

이게 뭐 말인지, 어쨌든 나는 이렇게 강의를 할 것이다.

낮설게 하기, 종을 초월한 괴물이 되어서 세계를 보기,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기 등에 대해 떠들것이다. 특히 '나 아닌 존재, 종을 초월한 괴물이 되어 사물을 보자'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도대체 그게 가능하거나 할까에 대해 몸짓을 주로 사용하여 말씀 드리겠다. 몸짓은 나의 한참 모자라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데 참 좋은 소통수단이니까.

“그러니까요, ‘중앙집권적이어서 굳은 체제인 몸’을 이래에~ 타악 풀고 눈빛도 마약 먹은 사람처럼 허물허물하게 푼 상태로 꽃을 봐 봐요. 꽃 옆에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앉아서 이래에~ 멍하기 그래 앉아 있어봐요. 몸을 힘없이 푸는 기 그기 중요한데요, 그기 잘 안되면, 안되면, 술을 마시고 다시 꽃을 찾아가 봐요, 그라고 다시 이래에~ 꽃을 봐 봐요. 이래에~ 보다 보면 내가 어느새 꽃이 되거든요. 물론 그 꽃에 대해 인터넷을 뒤져서 많이 알아서 찾아가면 더 좋겠지요. 찾아가서는 이래에~ 멍~하기 눈을 풀고 앉아 있는 거라요. 머엉하기. 그라고 나 아닌 존재가 ‘되기’라는 개념은 들뢰즈의 얘기지만 우리 전통의 시가문학에도 그런 기 참 많아요. 근데 말입니다. 참 쉽게 나 아닌 무엇이 될 수 있는 ‘되기’가 있어요. ‘되기’라는 것은 어떤 기(氣)의 흐름 같은 걸 몸에 체화하는 건데요, 노동현장이나 파업현장 시위현장에 가면요 되지 말라고 해도 그 무엇이 되거든요, 얼굴이 빨갛게 충혈되면서 나쁜 놈은 물리치는 게 좋겠어 그래야지 하는 생각이 막 들면서 노동자처럼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주먹이 쥐어지거든요, 거대한 역사가 구체적으로 내 몸에 쑈욱 들어오는 거 같은 느낌, 그런 기운, 그기 되기라요. 사랑하는 사람과 훌쩍 벗고 누워서 서로 안고 있으면 최고의 서로되기 상대방 되기가 되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이려어케 훌쩍 벗고 서로를 꼬옥 끌어안고 등을 실실 문질러 줘 봐요. 그때는요, 내가 나 아닌 사랑하는 상대방이 되는 거겠지요. 올매나 따스하고 멋진 소통입니까?”

이게 뭐 말인지. 나는 어쨌든 이렇게 강의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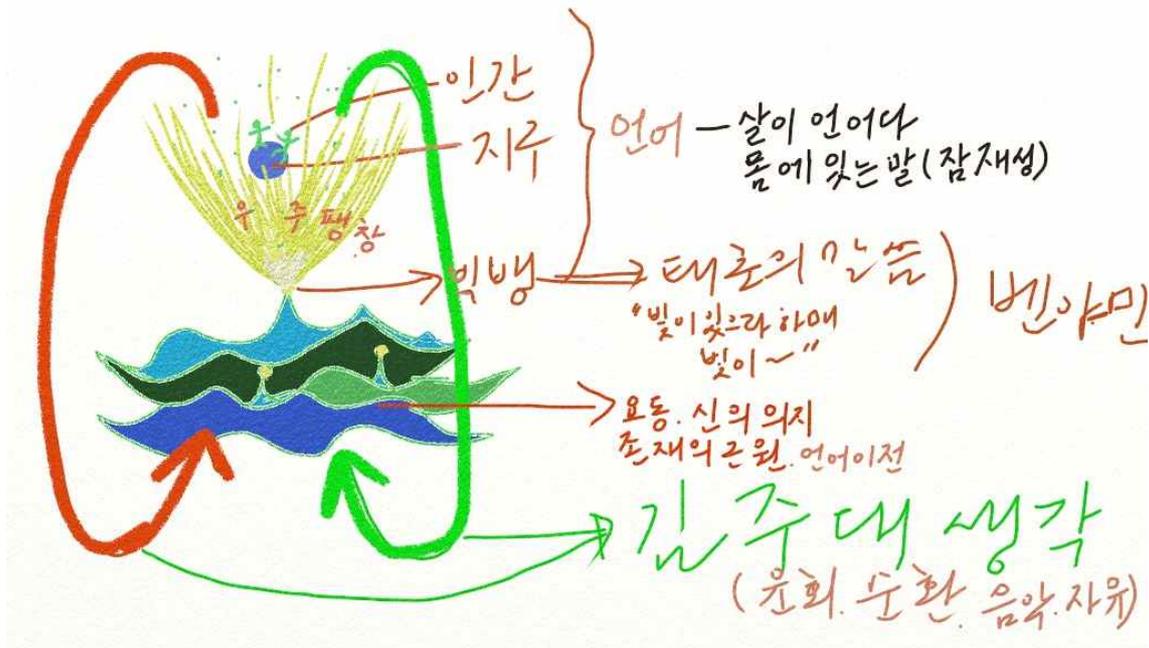
“몸이 움직이는 거는요, 우주의 시간 전체가 수축된 내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길을 걸을 때, 나의 몸을, 나를 잘 생각하면서 발바닥이 딛고 있는 이 현재가 어마어마한 우주의 응축된 걸음이라는 걸 이래~에 가마~이 생각하면서 걸어봐요.”

이게 뭐 말인지. 나는 어쨌든 이렇게 강의를 할 것이다.

1장 우주를 기록한 몸의 언어

1교시 시간의 사건

죽으면 노래가 되겠군요!



시간의 사건

우주는 지구를 저질러 놓고
용암 같은 점액질의 시간을 흘려보냈다
육신을 만난 시간이 뱃속에 나이트를 새겨
뜨겁고 촘촘히 과거를 감아 놓았다
나는 사건이다
깊은 숲 속 시간의 무거운 흐름 위로
어느 날 튀어 오른 물고기처럼
세상에 왔다
어머니의 무당은 육신의 나이트를 벗겨
기록을 읽고 미래를 점쳤지만
시간의 열기 속에
형체도 없이 사라지기 전까지
생은 시간을 역류하여 솟아오른 사건이다

아들이 나의 해결할 수 없는 벽찬 사건이듯이
모든 생은 스스로를 수습한다

우주의 고요하고 깊은 파동-이것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으로부터 빠져나와 인간이라는 유기체가 만들어졌다. 나무도 풀도 짐승도 하나의 유기체로 완성되기 이전에는 우주의 근원에서 음악처럼 흐르는 거대한 율동이었고, 온전한 자유였을 것이다.

그러나 유기체(자기 동일체)로 세상에 오는 순간부터 인간은 자기 형상(육신)을 유지하기 위해 늘 긴장해야 하고 먹어야 하고 싸워야 한다. 긴장이 풀어지면 오장육부의 내용물이 9개의 구멍으로 빠져나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 전까지는 인간은 스스로의 형체를 키우고 가꾸기 위해 육신에 구속되어 본래의 자유를 잊고 잃고, 멈추어 딱딱한 고깃덩어리로 긴장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인간이 딱딱한 고기로부터 해방되어 다시 우주의 근원적 흐름으로 돌아가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 죽음은 육신이 소멸되어 공기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는 것이다. 더욱 더 분해 해체 되면 인간의 영혼도 대자연의 바닥으로 내려가 음악처럼 흐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죽지 않고 우주의 근원적 흐름 속으로 인간 자신을 보내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술 창작 행위이다. 모든 예술가들이 그렇겠지만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순간에는 심장이 뛰고 살이 떨리는 희열과 고통을 동시에 맞본다. 형상 속에 갇혀 있던 자유가 살갓을 뚫고 나가는 것이다.

특히 시(건축, 회화, 도예, 서예, 무용, 음악……) 창작은 심장의 피와 열기를 시에 실어 형상 속에 구속된 자신을 외부로 무한히 방출하는 작업이다. 시는 창작자를 벗어나 홀로 세상을 떠돌며 사람들에게 가서 음악이 되거나 눈물이 되거나 따스한 온도가 되어 사람들의 심장에 피를 돌게도 하겠지만, 홀로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영원을 향해 흩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아무도 그 자유를 구속할 수 없다. 예술가들이 대부분 무정부주의적 기질을 가진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시는 절대자유를 향한 몸부림, 인간이 뒤집어 쓰고 있는 살로 된 거꾸집을 벗어나 해방되는 길. 시는 심장의 떨림이 머리로 올라가 안면으로 빠져나갈 때 만들어지는 미소처럼 표정을 가진 영혼이다.

창작자는 한없이 약하지만 창작자를 벗어난 시는 자유롭기 때문에 한없이 강하다. 인간 거꾸집을 벗어나 자유를 찾은 시가 어떻게 해석되고 활용되는가 하는 것은 순전히 시의 의지이다. 시가 창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때마다 창작자가 나서서 바로잡으려고 한들 그게 가능한 일이겠는가. 그런 제멋대로의 해석이 시인을 더욱 자유롭게 해 준다. 정치 사회적 의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를 썼는데도 정치 사회적 의미로 시를 해석한다면 시인은 잠시 정치인이 되는 것이고, 사랑이 조금도 들어있지 않은 시인데도 사랑의 시로 해석해 준다면 시인은 또 사랑을 앓는 연인이 되는 것이다. 때로 신도 되고 물건도 되고 위대한 존재도

되었다가 속된 존재도 되는 것이다. 시는 시인의 안에 갇혀있던 시인을 세상과 우주로 해방시켜 준다.

다작(多作)이나 과작(寡作)이나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미치면 못할 것이 뭐 있겠는가. 하루에 천 편을 쓰든 일 년에 한 편을 쓰든, 혼을 뿜듯 써낼 때 경계를 허물고 확산되는 자유의 아픈 행복은 물막이 공사 정도로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인 것이다. 그 흐름은 때로 기존의 모든 질서와 권위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기도 할 것이고, 새로운 길을 만들기도 할 것이다. 시의 힘은 진정성과 자유에서 오는 것이다. 일체의 권위로부터의 자유, 모든 가소로운 가식으로부터의 자유, 건방진 규격과 질서로부터의 자유, 그 진정한 자유가 시이다. 이것이 단순한 나의 시론이다.

* 시,라는 말 대신 회화, 건축, 도예, 서예, 무용, 음악 등의 말을 대입시켜 읽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모든 예술은 통하니까.

■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생각

·우주 시작의 에너지, 우리들 몸에 남아 있음, 우주 전체의 변화는 우리 몸과 현실에 영향을 미침

※ 베르그송의 원불도식

※ **시간 -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우리들의 현재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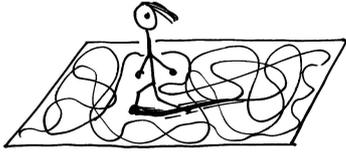
·공간 -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영혼의 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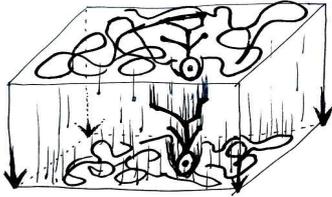
공격은 1차원 선의 세계이다.

무지몽매 달려가 어느 끝에 다다르면 공격은 환성되고 파괴만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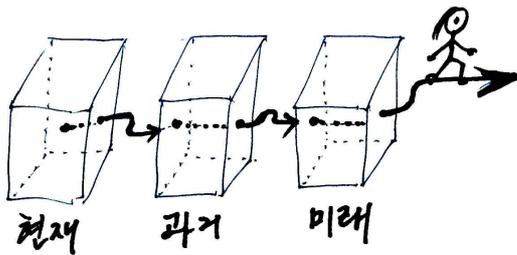
그리고 세계는 닫힌다.



그리움은 2차원 면의 세계이다.
 견딜 수 없는 갈망으로 천지를 두루 헤맬 때
 그리움의 아득한 넓이는 완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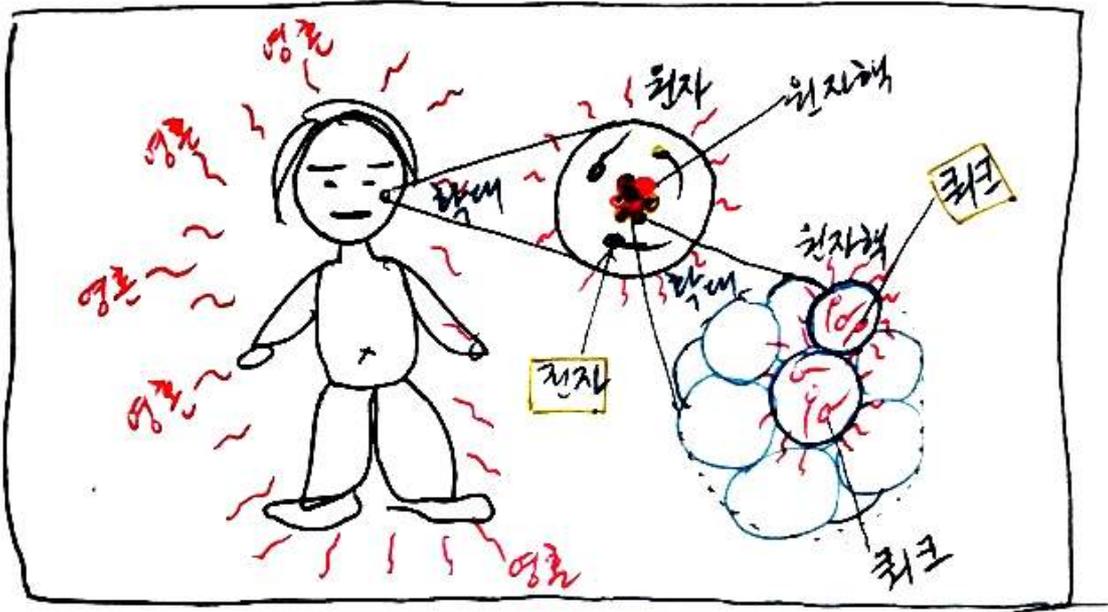


슬픔은 3차원 입체의 세계이다.
 그리움의 아득한 넓이를 가진 사람이
 생을 온전히 지고 위를 향해 꿈으로 솟구치다가도
 수직으로 떨어져 고통의 구렁이에 빠지면
 그의 생은 마침내 3차원 입체를 가지게 된다.
 사람다워 보이기 시작한다.



꿈을 가진 사람은
 시간과 공간 이동이 가능한 4차원의 세계로 갈 수 있다.
 나열된 3차원의 세계들은 연속적으로 관통하는 것은
 꿈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인간의 삶은 꿈을 통해 과거든 미래든
 다른 세계로 이동한다.
 그리고 이동에는 반드시 영혼이 동행하게 된다.
 영혼의 인간은 그렇게 탄생한다.

<영혼, 물리적 현상>



모든 물질은 원자들의 집합이다. 원자는 다시 전자와 업쿼크 다운쿼크라는 3종의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광속으로 움직이는 이들 소립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어떤 '힘'이 있다. 이것이 영혼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에는 수준이 다른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물리적 현상이겠다.

종잇장을 서로 맞대고 문지르면 정전기가 발생하여 종이가 서로를 붙는다. 종이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는 **종이의 영은**이다. 냇물은 흐르면서 바닥과 부딪혀 청량한 소리를 낸다. **냇물의 영은**이 내는 소리이다. 나무는 물과 빛과 공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꽃을 피운다. 꽃은 **나무의 영은**이다. 수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진 인간의 몸은 세포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장기가 발생한다. 그리고 장기들의 상호작용으로 인간의 신체는 유지되고 신체에서 더 높은 차원의 힘들이 발생한다. 그것이 **인간의 영은**이다. 시체에도 세포들이 활동하는 한에서 영혼이 있다. **산 사람의 영은(마음)**과 **죽은 사람의 영은(귀신)**의 종류가 다를 뿐이다.

집회나 시위 현장에 가면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에 묘한 흥분과 정의감이 차오른다. 집회장에 모인 사람들(물질들)끼리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이다. 집회장의 허공으로 거대한 힘이 뿜어져 나간다. 사람들은 강물처럼 일렁이며 전진하다. 그것을 거대 영혼의 탄생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힘 없는 자들끼리의 연대는 힘 있는 **거대 영은**을 만들어 사회를 바꾼다.

우주 전체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를 크게 네 가지로 본다. 전자기력, 약한 핵력, 강한 핵력, 중력, 이 네 가지 힘의 이론들을 통일시켜 우주를 아름답게 설명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게

‘초끈이론’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사회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힘의 종류들을 일관되게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의 이론이 있다. ‘사랑’이다. 작게는 개인적인 경우에서부터 크게는 사회적 경우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랑은 사회적 역학관계의 산물이며 그 역학관계는 물질 물리적 현상의 연장이다.

물질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물리적 현상이 인간영혼이라는 차원높은 단계로 승화되어 가듯이, 인민의 물리적 저항이 가장 아름다운 단계인 '정치권력 획득'으로 꽃피길 기대해 본다.

"예술과 물리학은 모두 인간의 최고의 표현 형식입니다. 물리학은 자연의 기본 법칙이 얼마나 아름답고 심플한가를 가르쳐줍니다. 물리학의 진보는 예술이 차례차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 적어도 내가 연구하는 물리학은 매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유도해 주므로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 파비올라 자노티(이탈리아 국적, 소립자 실험물리학자)

<영혼의 시작은 머리감기에서>

한 열흘 감지 않던 머리를 감는데 말이야. 하~ 시원하구나야, 시원하구나야,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라. 그래 생각했지. ‘생각’이란 것은 오랫동안 감지 않던 머리를 감을 때 생기는 거구나,하고 말이야. 생각이 더 고도화된 게 영혼이라면, 영혼은 머리를 감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구나,하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죽은 뒤에도 영혼만은 남아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어디 머리 감을 때 없나,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귀신이 그래서 있는 거야. 귀신이 머리 뽕뽕 뒹고 다니는 거 봤어?

그리고 말야, 머리 감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래. 오랫동안 못 보던 애인을 어느 날 딱 만난단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얼마나 반가워. 눈물이 막 나면서 반갑다는 생각이 막 생기는 거라. 아무 생각 없이 살던 놈도 만남이라는 육신의 작용에 의해 ‘생각’이 생기는 거지. 그 생각이 고도화되고 정제되어 고양되면 영혼이 되는 거지. 반가운 영혼.

밥도 그래. 우리가 한 열흘 굶어봐. 그러고 나서 밥을 얻어먹으면 그게 밥이야? 꿀이지 꿀. 꿀맛이란 말이야. 속으로 막 그러겠지. 하~ 꿀맛이로구나야, 꿀맛이로구나야. 생각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 밥을 굶다가 밥을 얻어먹을 때 생긴 생각 그게 또 고양되면 영혼이 되는 거지. 그 영혼은 우리가 죽은 뒤에도 천지사방 돌아다녀, 결신(乞神)이라고.

어떤 놈이 죽도록 미운 거야. 평소에 아무 생각도 없다가 그 놈만 만나면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그래 바로 그거야. 안구의 육체적 작용에 의해 없던 생각이 생기잖아, 죽이고 싶다는. 역시 그 생각이 잘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세속의 차원을 넘으면 사후에 그게 영혼이 되는 거지. 죽어서도 잊을 수 없는 원한의 집적체, 원귀(冤鬼)라는 거지.

가마이 이래~에 생각해 보면 어릴 적 우리 외할머니는 내게 늘 이런 말을 했던 말이야.

“으이구 귀신은 머하고 있노, 저걸 안 잡아가고” 물론 ‘저것’은 나를 이룬 말이야. 슬펐지. 내가 귀신이나 잡아갈 놈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 외할머니하고 사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냐고. 근데 나는 또 그럴 때 비로소 엄마가 한없이 그리웠거든. 막 사무치게 보고 싶었거든,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짝 차서 비틀비틀 골목길을 혼자 걸어다니던 그 쪼맨한 초등학교 1학년 짜리를 생각해봐. 아 詩팔, 엄마가 무지 보고 싶었어.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 이상한 거는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아직도 그 그리움이 내 생각의 8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늘 외롭고 그림고 보고 싶고. 그래서 집에 붙어있지를 못하고 여, 저, 빌~빌 돌아댁기는 거라. 아마 죽어서도 그런 무슨 애뜻한 그리움만으로 세상을 떠돌 거 같아. 너무 어릴 때 엄마와 헤어지게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또 혹시 돌아댁기다가 낯선 여자가 나의 아이를 가지게 되면 반드시 낳게 해서 엄마랑 아기랑 둘이 10년 이상은 꼭 함께 살게 할 거라고. 안 그러면 그 아기도 나처럼 행려자가 될지도 모르잖아. 불쌍해.

말이 길었지? 미안. 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란 거는 아무 일 없이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 신체가 어떤 동작을 할 때 그 동작과 완전히 동시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지. 뽀뽀를 생각해봐. 금방 이해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멋지게 잘 사는 놈은 멋진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의 최고 형태가 영혼이니까 그런 놈은 영혼도 아름다워진다는 거야. 죽어도 아름다운, 뭐 그런 비장미 같은 게 생기는 거지. 나? 나야 뭐 걸신이나 원귀나 그런 게 된다고 해도 억울하지 않아. 자주 배가 고프거든. 이상하게 시 하나 쓰면 밥 한 그릇 먹고 싶고, 그림 하나 그리면 또 밥 한 그릇 먹고 싶고 그래. 못 먹을 땐 원한이 생기고. 걸신이나 원귀나 그런 게 나의 사후겠지. 히히히(귀신 웃음). 지금 배고파.

* 추신

풀도 생각이 있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가는 허리를 구붓기며(구붓기다; 고대수필 규중칠우쟁론기에 나오는 단어야. 너도 써먹어, 그러면 죽었던 어휘 하나가 살아나.) 그와 동시에 생각이 생기는 거지. 아이고 왜 이래 아이고 왜 이래, 하면서 흔들리는 자신을 생각하는 풀. 그래서 나는 그 풀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어. ‘아이고왜이래풀’ 그래서 풀이 죽은 겨울 들녘에 가서 이래에 서 있으면 허공에서 아이고왜이래 아이고왜이래, 하는 소리가 들려. 풀 영혼의 외침이지.

자동차도 생각이 있어. 고속도로를 150키로나 160키로로 달려봐 차가 막 소리를 질러, 차저도 그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지. 평소에 없던 정신이 물리적 속도와 함께 생긴 차. 불쌍해서 좀 속도를 낮추면 아~ 아~ 이러면서 디기 좋아해. 잘 달리지. 차가 죽으면 횡단보도 근처에 와서 빌빌 돌아댁기는데 봤지? 안 봤어? 잘 봐봐 있어. 횡단보도 이런 데서도 차 조심해. 차 영혼이 잡아갈지도 몰라. 배가 고파서 더 못 쓰겠어. 수없이 많은 영혼들에 대해 말하고 싶지만 난 밥을 못 먹으면 아무것도 안 돼. 안 나와. 이따가 봐.

참고

<시에 대한 생각>

생각 하나.

우리는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어 거기에 살 듯이, 시를 지어 실제로 거기에 거주한다. 시는 건립된 세계이고, 또렷이 감촉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또한 시는 핵미사일이 될 수도 있지만 우주를 전개하기도 하고 개화를 앞당기기도 한다.

생각 둘.

시선이 닿는 데까지가 우리의 의식이라면 보이는 모든 것이 우리의 공동 살(肉)이다. 우리는 이쪽에서 저쪽까지 단숨에 건너가서 서로에게 닿는다. 하늘과 땅과 가장 먼 산까지가 우리의 살이어서 그리운 것들은 이미 다 우리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시선이 닿는 곳과 함께 가을이 와서 가을인 것이다. 참말로 그렇다고 고개 주억거리며 우리를 내려다보는 저 아득한 하늘 좀 봐. 저 하늘이 우리가 아니라면 누가 우리이겠어? 생각이 닿는 데까지가 한결 같이 우리라면 우리는 오래 전에 하나였던 것인데 가을에 홀로 울 필요는 크지 않다. 자, 받아라. 한잔. 이렇게 멀고 긴 팔을 보았느냐?

생각 셋.

가슴이 아프다,고 말할 때 진짜 신체기관으로서의 가슴 부위, 심장이 아플 때가 있다. 이별의 아픔은 너가 관리하는 심리적인 것이 아니고 피 흐르는 붉은 심장이 곧바로 느끼고 판단하는 어떤 상태이겠다. 가끔 너를 생각하면 손이 떨릴 때가 있다. 그럴 땐 손이 너를 떠올리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너를 포용하였던 따스하고 말랑한 기억으로 몸이 뜨거워진다면 몸 전체가 너를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온몸으로 그리워한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2장 풍경 속의 기호들, 유추

버스에서 아기 손을 잡고 내린 엄마가 지갑을 넣느라고 아기 손을 놓았다. 놀란 아기가 얼른 엄마의 얇고 짧은 치마를 더듬어 잡았다. 치마가 올라가며 속살이 좀 보였다. "치마를 잡으면 어떡해, 엄마 창피하잖아" "엄마 미안해 엄마" 음~ 내 보기엔 그다지 창피한 광경이 아니었다. 보기에 좋았다. 지갑을 넣은 엄마가 다시 아기 손을 잡자 아기는 엄마 어찌고 저찌고 붕어입을 쾅알대며 강아지줄에 묶인 강아지처럼 잘 따라갔다. 보기에 좋았다.

1교시 사진 읽기

> 1.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물, 기호들에 대한 해석

나와 무관한 존재는 하나도 없다. 해석(세계의 자아화)을 기다리는 기호들.

네모난 세계 -> 네모난 가치관 -> 네모난 해석, 네모난 시

둥그란 세계 -> 둥그란 가치관 -> 둥그란 해석, 둥그란 시

> 2. '사진 읽기' 혹은 '사물에 대한 인식' 의 3단계

(유추를 지극한 지점까지 밀고 나간다)



1. 초딩> 저 꽃이 노랗다 / 저 언덕 위에 쪼그려 앉은 할머니 = 너 나쁜 놈이야
직설적, 유아적, 보이는 대로 말함, 누구나 할 수 있음, 심지어 바보까지도
예) 생일 케익 선물

2. 고딩> 꽃이 노랗다 / 기다림 = 나쁜 놈이 있어
지시어 '저'를 빼버림. 버림의 미학. 버리면서 확장되고, 버리면서 깊어지고, 버려서 자유로워
짐

3. 시인> 현기증이 인다 / 생의 언덕을 넘다 노랗게 울던 날이 있었어 = 어둠이 보인다

민들레 할머니, 돌 속의 길

돌 속을 걸어왔다
밀어도 나아가지 않으니
돌아봐도 온 것은 아니다
빛이 깜깜하게 쌓인 돌 속의 길에
현기증 일듯 피고 진 꽃들
단단한 허공을 이고
남은 목숨의 낮은 언덕에 앉아
문득, 돌아본 길에 피고 진 꽃들
꽃의 피붙이들이
돌 속을 하얗게 날아다니던 기억 ~

어쩌구 저쩌구 ~

> 3. 사진 속의 기호들을 찾기 위한 노력

1. 찍은 사진을 자주 들여다 봄. 자면서 생각하기. 자다가 보기. 가지고 다니며 보기.
2. 자료 찾아보기. 공부.

※ 유추

동일한 분류 범위 안에 있는 두 대상의 공통점을 찾는 것을 '비교'하고 한다. 이에 비해 분류 범위가 전혀 다른 두 대상이 공통점을 찾는 것은 '유추(유비추리)'라고 한다. '유추'를 '확장된 비교'로 부르기도 하는 이유는 유추와 비교 모두 두 대상의 공통점을 찾는 일이기 때문이다.

비교(a:b=a':b')

만년필:뽕족하다=볼펜:뽕족하다(만년필과 볼펜의 공통점)

유추(a:b=a':b')

막대기:물의 깊이를 알게 해준다=할머니:인생의 깊이를 알게 해준다(막대기와 할머니의 공통점)

현상이나 사건이나 사물을 볼 때 전혀 다른 대상과 연결해 보는 일은 즐겁기도 하지만 사고를 확장시켜 준다. 전혀 다른 두 대상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일이 시의 시작이 아닐까 싶다. 이것이 단순한 나의 시론이다.

예)



출처

바람이 제 살을 찢어 소리를 만들 듯
그리운 건 다 상처에서 왔다





부녀

아르바이트 끝나고 새벽에 들어오는 아이의
추운 발소리를 듣는 애비는 잠결에
귀로 운다

2교시 사진 읽기



밭목 유언

죽어도 수직으로 죽겠다던 주인을 잃고, 홀로 남아 주인의 유언을 마저 쓰고 있는 담쟁이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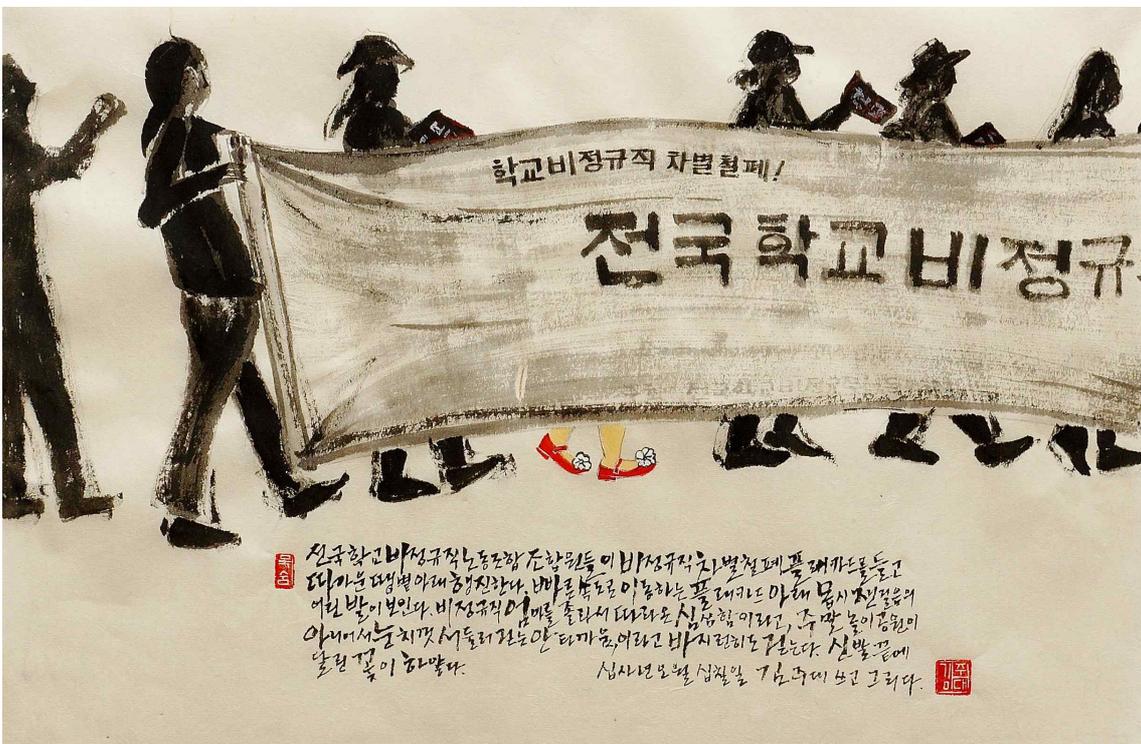
아이들이 담벼락에 그려놓은 태양. 그 아래 풀꽃이 잘 자라고 있었다. 담을 쌓은 어른들의
가파른 마음에 천사들이 다녀가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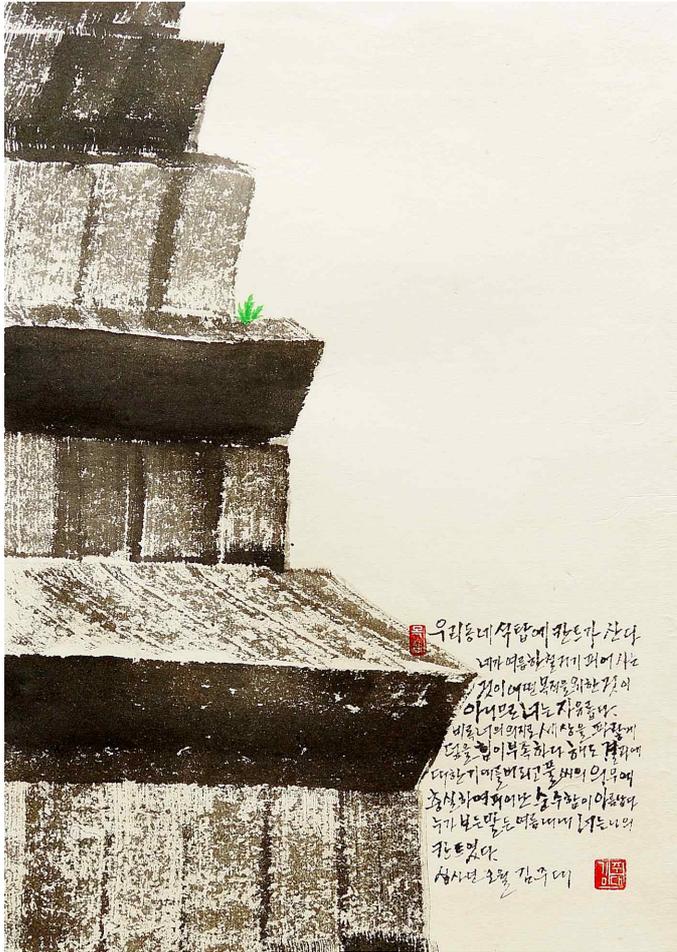


지난밤에는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어린 것들의 긴 행렬을 보았다. 요즘 ‘가만히 있으라’ 해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오는 건 다 촛불로 보인다. 죽은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새싹을 보고도 그만 그렇그렇 눈물과 동조의 박수를 친다. 나와라 다 나와라, 나와서 엄마한테 가자.



부끄럽지 않은 발걸음이 슬프기는 해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비정규직차별철폐 플래카드를 들고 따라온 땀별 아래 행진한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플래카드 아래 몹시 켄걸음의 어린 발이 보인다. 비정규직 엄마를 졸라서 따라온 심심함이라고, 주말 놀이공원이 아니어서 더 눈치껏 서둘러 걷는 안타까움,이라고 바지런히 걷는다. 신발 끝에 달린 꽃이 하얗다.



우리 동네 석탑에 칸트가 산다

네가 여름 한 철 거기 피어 사는 것이
 어떤 '목적'을 위한 일이 아니므로 너는 자유롭다.
 비록 너의 의지로 세상을 파랗게 덮을 힘이 부족하다 해도,
 결과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풀씨의 의무에 충실하여
 피어난 순수함이 아름답다.
 누가 보든 말든 여름 내내 너는 나의 칸트였다, 풀

3장 낮설게 하기, 되기, 형상화

1교시 낮설게 하기

낮설게 하기

이 시론은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다. 교훈적 어투나 청유형 문장이 나타나겠지만 그것은 흔히 책상 앞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며 ‘그래 해보자, 할 수 있다’고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은 것이다. 스스로에 대한 다짐과 결의일 뿐이다. 그러나 또 혹 가르침으로 들려도 기분 나쁘지 않은 이들이 있다면 그것도 그냥 괜찮겠다는 생각이 없지는 않다.

이미 많은 이들이 창작방법 중의 하나인 ‘낮설게 하기’를 설명했고 또 사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예시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예들을 중심으로 ‘낮설게 하기’를 소개해볼까 싶다.

- (1) 늦은 아침에 이불을 걷으며 일어났다
- (2) 밥 한 공기를 먹었다
- (3) 칫솔에 치약을 묻혀 양치질을 깨끗이 했다

이 문장을

- (가) 아침 햇살이 머리말에까지 찾아와서 이불을 빼앗아 가버렸다
- (나) 위장에 공깃밥 한 그릇을 배달했다
- (다) 치약을 묻고 칫솔이 입안으로 쳐들어오니 이빨들이 지레 거품을 물었다

로, 바꿔놓고 보면 동일한 내용임에도 느낌이 다르게 다가올 것이다. 왜 그럴까? 문장 (1),(2),(3)과 문장(가),(나),(다)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말하자면 (1),(2),(3)의 평범한 문장을 '낮설게' 바꾼 것이 (가),(나),(다)의 문장이다. 일상의 언어와 다르게 (운을 넣거나) 수사적 형식을 더하여 발상의 전환을 꾀한 것이다.

몇 개의 예를 조금 더 들어볼까 한다.

- (1) 고요한 절의 처마 끝에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딸그랑딸그랑 소리를 내고 있다
- (2) 법고 근처에 물결한 등을 가진 두꺼비가 법고 소리를 듣는 듯 가만히 서 있다
- (3) 뜨거운 여름 폐가의 마당에 덩굴이 자라고 있다

이 세 문장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보자

- (가) 풍경이 처마 끝에 쌓아둔 바람의 경전을 읽고 있다
- (나) 눈감고 서서 물컹한 등에 법고의 여음을 신는 두꺼비
- (다) 더운 여름을 훑으며 덩굴의 햇바닥이 떠나지 못한 영혼처럼 마당을 걸어 다닌다

바뀌기 전의 문장과 바뀌고 난 후의 문장을 가만히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이다. 러시아의 평론가 슈클로프스키는 인간의 지각은 일상의 친숙한 것들보다 낯선 것에서 더 미학적 가치를 느낀다고 하였고, 독일의 시인 브레히트도 일상적 형식과 다른 형식을 창조함으로써 평소 인식하지 못하던 것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술은 낯선 것을 통해 일상성 속에 매몰되어 쉽고 안이한 것만 추구하는 배부른 돼지들의 뒤통수를 까는 것이다. 화가 마그리트는 일상적 소재를 낯선 곳에 배치하는 ‘낯설게 하기’ 수법 하나로 최고의 화가가 되었다.

유치하고 낯은 사고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이 예술이라면 그 중에도 시는 특히 전쟁처럼 일상의 언어를 파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급한 일상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붙들고 어쩔 줄 모르며 떨고 서 있는 것이 시인(등단과 무관하게)이 아닐까. 우리는 기존 사회의 조직과 관습에 순한 양처럼 엷매여 사고하고 살아간다. 기존의 조직과 관습과 문화는 물리적으로 힘센 소수의 지배계급이 만든 것일 때가 많다. 언어도 마찬가지다. 시는 그것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기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낯설게 하기’이다.

훌륭한 장인은 피나는 노력과 엄청난 양의 연습을 통하여 기술적으로 완성된다. 그런 연후에 기예가 나오고 예술이 나온다. 시가 뭔지 꼬치꼬치 물어 답을 얻었다고 시를 잘 쓸 수는 없다. 이론서 백 권 천 권을 봐도 헛일일 것이다. 연습하자. 하루에 5문장 한 달에 150문장씩 일상적인 문장을 낯선 문장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자. 아니 ‘세상 뒤집기’를 하면 어떨까. 하나의 문장을 낯설게 하는 것은 하나의 세계를 뒤집는 일이다.

- * 별에 쏘였다. → 별이 자신의 전 생애를 내게 밀어 넣었다.
- * 슬픈 노래를 불렀다. → 목구멍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질렀다.
- *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다. → 눈으로 풍경을 포옹하였다.
- * ... → ...

이렇게 늘 뒤집고 저항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야겠다. 한상렬 목사는 국가보안법을 뒤집었다. 체게바라는 남미를 뒤집었고, 레닌은 러시아를 뒤집었다. 모택동은 만 리를 걸어 중국을 뒤집었으며 안중근은 목숨을 바쳐 일본을 뒤집었다. 우리는 문장을 뒤집어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 조용히 그러나 멋지게 뒤집어 낯설게 하기, 이것이 단순한 나의 시론이다.

‘그 말’을 ‘그 말’로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는 ‘북’이라 불리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재일(在日)’이라 불리었으며 일본에서는 ‘자이니치’라 불리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심장, 내가 고통을 하면 할수록 모두에게 피가 흐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06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일본에 지는 모습을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뛰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대세는 축구 선수다. 그런데 그는 한반도를 말하고 있다. 단지 공으로. 말하지 않고 말하고 있다. 정대세가 시인이다.

공자는 “詩三百 一言以蔽之曰 思無邪(시삼백 일언이폐지 사무사)-시 삼백 편을 정리한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 사람들의 생각에 사악함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이황은 “문학은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한 것이어서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하였다. 문학의 윤리적 기능을 강조한 그다지 맘에 들지 않는 시론들이다. 그런데 이규보의 시론-시에서 못 마땅한 아홉 가지 문체(詩有九不宜體)-은 재미있고 구체적이어서 특히 창작하는 데는 참 유익한 시론이다. 이규보의 문체론을 훑내 내어 ‘시에서 못 마땅하고 마땅한 몇 가지 문체’를 이야기한 일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시 창작에서 느낀 소중한 몇가지 문체를 말하고자 한다. 여러 가지 품성적인 이유로 심각하게는 말 못하겠고 그저 흘러가는 물처럼 중얼거리고자 한다. 흘러가는 이야기에 더러 소용돌이와 물굽이가 있으면 좋기는 하겠다.

아주 귀여운 아기를 어떻게 시로 표현해야 할까? ‘아주 귀여운 아기를 보았다’라고 쓴다면 어떻게 생겼기에 아주 귀여운 아기인지 전혀 상상이 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보고 싶을 때의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그려야 할까? ‘정말 보고 싶다’고 쓰면 속이 뻥뻥 보이니까 일차원(저질)적이다. ‘정말 아주 많이 굉장히 미치도록 미치도록 보고 싶다’고 표현하면 허풍쟁이로 보인다.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죽이고 싶도록 밉다’고 대놓고 표현하면 속마음이 들통나서 위험해진다. 독재정권들의 문학 탄압을 상기해 본다. 탄압이 무서워서 직설적으로 쓰지 말자는 게 아니고 직설적인 시는 실제로 힘도 없고 감동도 없으니 쓰지 말자는 얘기다. 탄압 받고 싶어도 탄압해주지 않을 것이다. 만약 탄압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시가 훌륭한해서가 아니라 탄압하는 그 정권이 무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겠다.

그래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아름답다’고 쓰면 시가 아니다. 가슴이 미어지도록 슬플 때 ‘가슴이 미어지도록 슬프다’고 쓰면 시가 아니다. 미치도록 그리울 때 ‘미치도록 그립다’고 쓰면 시가 아니다. 너무 괴로울 때 ‘너무 괴롭다’고 쓰면 시가 아니다. 답답할 때 ‘답답하다’고 쓰면 시가 아니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싶다’고 쓰면 시가 아니다. 그러고 보면 시가 아닌 시를 죽이면 시가 되겠다. 시는 도처에 있다. 살인자의 마음으로 봄을 누비고 문장을 누빌 일이다. 다 죽이면 된다.

아기에게 “사랑해 아기야!”라고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어머니가 ‘아기를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가 아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자신의 머리로 그늘을 만들고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모습이 날것 그대로 아기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의 표현인데 굳이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표현하라고 어머니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말하지 않고 젖을 먹이고 있는 모습이 말하는 것보다 더 애뜻하고 위대하다. 정리하면 이렇다. '그 말'이 미치도록 하고 싶을 때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시가 올 것이다. '꼭 그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꼭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시가 와서 가슴에 안길 것이다. 그 때 입 다물고 조용히 시를 받아 적을 일이다. " '그 말'을 '그 말'로 하지 않는다." 이것이 단순한 나의 시론이다.

2교시 되기, 형상화

* 詩 확장되다

확장되다

휘파람은 소리가 예쁜 새가 되는 게 분명해
가만히 휘파람을 불면 새들이 날아와 지저귀잖아

발바닥은 흘러가서 뱀이 되었을 거야
숲길을 밟는 몇 발자국 앞에 뱀을 본 적이 여러 번이거든

물론 한숨은 바람이 되었겠지
말하자면 왜소한 한 인간의 슬픔이 자연으로 거대해지는 거
바람소리를 들어봐 그건 누가 뭐래도 똑 한숨 소리야

머릿속의 생각들은 몽글거리며 떠올라 어느 날 구름이 된 게 맞아
잊어버리고 싶을 때 구름이 소나기로 내리는 건
씻은 듯이 잊으라는 거겠지 그럴 거야

새가 되고
뱀이 되고
바람이 되고 구름이 되고
그러니까 나는 끝없이 주변으로 확장되고 있어
아니 뭉어지면서 내가 없어질 때까지 넘치는 거지
사라지면서 전부가 되는 거 말야

여자를 만나 가슴이 붉어질 때 꽃이 피었고
여자를 잃고 식은땀을 흘리며 앓을 때 함께 앓던 계절
그렇지 앓고서야 지난 여름이 그렇게 무더웠을 수가 없잖아

나인 것도 나 아닌 것도 없는 거기까지 살다가
모든 나가 사라지면서 전부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되기

강변, 흰 코스모스 주변을 오후 내내 빌~빌 돌아다니다가 흰 코스모스 곁에 자리를 잡고 두

어 시간 나란히 앉아 있었다. 흰 코스모스는 바람과 개미와 풀과 이웃 코스모스들과 함께 있었고 나도 바람과 개미와 풀과 흰 코스모스의 이웃 코스모스들과 함께 있었다. 우리는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한참 함께였다. 저녁이 되었을 때 흰 코스모스가 쌀쌀한 바람에 흔들리는 모양과 비슷하게 나의 몸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멀리 있는 어머니나 애인보다 강변의 흰 코스모스와 내가 더 닮았다는 걸 느꼈다, 흰 코스모스가 이파리를 오므릴 때 나도 몸을 오므렸으니까, 개미가 흰 코스모스 이파리까지 올라와 돌아다닐 때는 내 얼굴이 다 간지러웠으니까, 심지어 흰 코스모스 잎이 하나 떨어질 때 나도 그만 고개를 떨구고 말았으니까. 붉은 코스모스들 사이에 유독 결백한 흰 코스모스로 태어난 이유를 알 것도 같았다. 바람에 질 것을 알기에 욕심 없이 얇게 태어나 여리게 살다가 그만 예뻐져 버린 목숨. 그 목숨의 떨림을 읽으며, 그 때 나는 흰 코스모스가 되고 있는 중이었는지도 모른다.

* 신체의 속성은 종적(種的) 특성이 아니라 그 신체에 귀속되는 환경(다른 신체들)과의 접촉 관계와 그로 인해 생성되는 정서적 능력으로 정의 된다. - 천개의 고원(들뢰즈와 가타리) 중에서

형상화(形象化)

(‘단순한 나의 시론’은 첫 회에서 언급했듯이 누구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못 쓰는 시지만 시를 쓰면서 든 생각을 중얼거리고 싶어서 올리는 글이다. 그러나 만약 가르침이 된다면 뭐 그것도 그리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거칠고 조악한 지식이나마 네 것 내 것 없이 나눌 수 있다면 꽤 좋은 일이기도 하겠다. 여, 저, 돌아다니며 많이 얻어먹었느니, 줄 것 없는 놈이 이런 거라도 올리면 맘이 좀 편하다. 오래 전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그랬듯이 나는 지식의 공산당, 詩의 공산당이 되고 싶다. 서두가 길었다.)

모양 형(形) 모양 상(象), 형상화(形象化)! 글자의 의미 그대로 ‘모양이 없는 것(관념)을 모양이 있는 것(구체)으로 만드는 것’이 형상화이다. 형상화가 대수는 아니지만 형상화가 잘 이루어진 시를 좋은 시라고 흔히 말한다.

예컨대

“그리워,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아, 환장하겠어,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 아, 사랑하는 여자여!”

라는 문장과

“너를 그리며 쥐어뜯은 머리카락이 책가방 만큼 쌓였어!”

라는 두 문장을 비교해보자. ‘그립다’ ‘환장한다’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미친놈처럼 중얼거리겠지만 윗 문장은 도대체가 허황하다. 모양도 색깔도 양도 무게도 냄새도 없는 관념적인 말들을 나열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래 문장을 보면 그리움의 양이 딱 드러난다. 얼마나 그리웠으면 ‘책가방 만큼’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을까, 생각만 해도 소름끼친다. 망할 새끼 내가 더럽게 그리웠구나, 불쌍한 놈,이란 생각이 들며 얼른 전화라도 해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만약 또 다른 사내가 “너를 그리며 쥐어뜯은 머리카락이 냉장고 만큼 쌓였어”라는 문자를 보내온다면 그리움의 ‘양’을 비교하여 책가방보다야 냉장고가 크니까 ‘냉장고 만큼 많은 양’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은 사내한테 달려가겠지.

그렇다. 흥분하여 개 짖듯이 마구 관념적인 말을 떠들어대지 말고 차분하게 앉아 구체적인 말로 사랑을 고백하자.

당신의 이마는 넓고 아름다워요,보다 당신의 이마 위에서 말타고 달리고 싶어요,가 좋은 표현일 것이다.

콧구멍이 참 예쁘군요,라는 말보다 당신의 콧구멍에 들어가 텐트 치고 잠들고 싶어요,라는

말이 더 오래 기억될 것이다.

왜 그럴까?

앞의 말들은 관념적 표현이고 뒤의 말들은 구체적 표현이기 때문이겠다. 관념적인 말들이 우아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광범위한 내용을 다 담으려는 욕심과 망상과 착각과 오만함이 들어 있다. 그에 비해 구체적인 말들은 솔직하고 감각적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표현은 사람을 움직이고, 심장을 물들인다.

이것이 단순한 나의 시론이다.

*

관념어 - 구체적인 대상이 아닌 추상적인 생각이나 심리를 나타내는 말
구체어 - 책상이나 사과 따위처럼, 실제적인 지시물을 가지고 있는 단어

4장 몸에서 캐낸 문장들. 그림으로 쓰는 시. 시의 윤리

1교시 그리움의 넓이 - 창작과 비평사

아르바이트 끝나고 새벽에 들어오는 아이의
추운 발소리를 듣는 아버지는 잠결에
귀로 운다

- 「부녀」 전문

더도 덜도 아니고 딱 그랬다. 시가 체험에서 우리나라는 고래의 낡은 언술을 굳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게 있어서 시는 그랬다. 체험. 가슴이 아프다고 말할 때 진짜 신체기관으로서의 가슴 부위, 심장이 아플 때가 있다. 기쁨이나 고통은 뇌가 관리하는 심리적 작용이 아니라 피 흐르는 붉은 심장이 곧바로 느끼고 판단하는 어떤 자동습관적 상태이겠다. 오래 전 나를 떠나간 이들의 사진을 보면 가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때가 있는데 그것은 다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들을 포옹하였던 따스하고 말랑한 기억으로 몸이 뜨거워진다면 몸 전체가 사랑의 체험을 기억하는 뇌라고 말하고 싶다. 온몸으로 그리워하고 온몸으로 아파한다는 말이 가능하겠다. 귀가 우는 소리를 몸으로 들었다. 집이 망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용돈이라도 벌어 쓰는 어린 자식의 새벽 귀가 발소리를 누워서 들어야 했다. 어느 아버지가 울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지경에 귀인들 어찌 울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몸의 체험이 나의 시였고 나의 시는 몸의 지절들이었다. 적어도 시를 쓰던 그 시간에 그랬다.

보증금을 다 까먹을 때까지 버텼지만 학원운영은 나의 능력 밖의 일이었다. 점점 바닥으로 내려앉는 불안감이 시를 쓰게 했던 것도 같다. 미친 듯 술을 마시고, 아무데서나 잤다. 돈푼 꽤나 만질 때 샀던 고급 승용차를 팔고 주행거리 30만 킬로미터가 다 되어가는 걸만 멀쩡한 고물차를 받아왔다.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하면 하루가 금방 갔고 밤이 왔다. 노래를 듣기도 하고 술을 훌쩍거리기도 하며 밤을 새웠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 카메라를 매고 한강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공원에서 노숙자들 근처를 맴돌았다. 서해에 가서 고향을 치고 돌아오기도 했다. 버려진 것 초라한 것들은 다 나를 닮았다는 막돼먹은 생각도 했다. 어머니 계신 고향에는 이태째 내려가지 않았다. 시멘트 틈에 끼어 킁킁거리며 올라오는 작은 풀들, 별도 날아오지 않는 밝힌 꽃들이 나를 닮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무리를 떠난 꽃 한 송이
가파른 상처에 뿌리를 대고
진다
벼랑 끝에 이르러서야 자유로웠던 삶이
선 채로 죽음을 인수하고 있다

너를 만지던 눈으로
너를 안으면
뜨겁게 살아 빨리 늙은 여름이 풀썩 안겨온다

이름 없는 이에게는
눈물이 봉분이어서
젖은 눈 속에 너를 매장한 뒤
다독다독, 조금은 울어야겠다

- 「풀꽃 매장지」 전문

종일 거리를 헤매며 보드블록 틈에 낀 풀들을 찾아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발길은 어느새 술집을 향하고 있었다. 술집에서 만난 여자들에게 농담을 걸고 시를 읽어주며 우는 모습을 즐겼다. 못 알아듣고 헛소리를 하면 바로 욕설을 퍼부었다. 그런 독자들을 이해시키려면 십 년도 더 걸릴 것 같았다. 다행히 시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시를 읊어 시를 팔고 술을 얻었다. 그런 자리에서는 이른바 쉬운 시, 눈물 찼끔거리는 시, 감상적인 시를 읊어주는 게 체격이었다.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기 전에 알바생 어린 딸이
홀깃 쳐다보았을 진열장 속 비싼 음식모형
나도 모르게 침 넘어가는 순간, 몸에는 어느새 눈물 냄새가 번진다
시급 오천 원짜리 딸이 퇴근하는 새벽까지
졸면서 책상에 앉아 돈 안 되는 글을 쓰다가
아빠 뭐해? 문자가 오면, 별떡 일어나
응, 지금 돈 되는 글 쓰고 있어~ ㅎㅎ, 라고 답을 보낸다
키가 훌쩍 커버린 아픈 막내는 가족이 모두 일하러 간 사이
화장실 옆에 걸레처럼 길게 몸을 뉘어 놓고
구토가 날 때마다 어린 고독을 울컥울컥 쏟아낸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더라도
탈모증을 좀 잘 가리고 예쁘게만 보여
맛있는 것 무사히 얻어먹기를 솔직하게 빈다
그래서 나는 이 집안의 애비다
젊은 날의 사랑으로 목숨을 떼어 만든 저것들이 다 클 때까지는
살기 싫어도 살아있어야 한다
혈액처럼 몸 안에 흐르는 눈물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눈두덩에 눈물 같은 걸 올려놓지는 말아야 한다
아가리로 올면서 아가리로 밥을 처넣는 게 인생이라면
김밥이든 라면이든 밀어 넣어 올라오는 울음을 틀어막고
농담처럼 또 쓰으윽 웃는 거다
내려가는 밥과 올라오는 눈물을 울대뼈췌에서 충돌시킬 때마다
신의 잔인한 의지를 멍멍하게 멍멍하게 목구멍으로 느끼는
나는 이 집안의 강한 애비다

- 「먹먹한」 전문

돈도 없었지만 공술에 눈이 멀어 읊은 시들이 시집에 실리니 좀 다르게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체험에서 나온 그 술 냄새는 갈 데 없이 시에 스며들었다. 좀 화끈거리는 내용도 없지 않지만 그냥 신기로 했다.

도망치고 싶었다,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그러나 갈 데가 없었다. 우연히 허름한 구립 도서관을 발견하고 도둑처럼 들어가 잡다한 책들을 닦치는 대로 읽었던 것 같다. 거기서 나는 질 들뢰즈의 저서들을 조금씩 읽어나갔다. 어려웠지만 재미있었다. 목숨의 바닥에서 올라오는 생의 근원적인 목소리를 만지는 기분이었다. 내 몸뚱이 어딘가에 갇혀 있을 비밀한 존재의 노랫소리 같은 게 들렸다고 하면 과장일까. 그리고 이런 구절을 발견하였다.

흙과 습기의 수축이 있고, 이것이 밀알이라 불린다. 그리고 이 수축은 어떤 응시이며 이 응시가 가져오는 자기만족이다. 들뢰즈의 백합은 단지 자신의 실존을 통해 이미 어떤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 하늘, 대지의 여신과 신들의 영광을, 다시 말해서 자신이 수축하면서 응시하는 요소들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다. 어떤 유기체가 예외이겠는가?

-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중에서

오그라들거나 줄어듦, 이 수축이다. 이 한 단어로 유기체의 생을 다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유기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 사라지지 않고 유기체 내부에 수축되어 쌓인다는 얘기다. 들뢰즈의 밀알은 흙과 습기에 대한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시간을 자신의 내부에 축적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싹을 틔웠겠지.

‘들뢰즈의 백합은 단지 자신의 실존을 통해 이미 어떤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 백합이 존재한다는 것은 백합이 경험한 모든 대지의 요소들 흙, 습기, 온도, 벌레들이 뿌리에 닿을 때의 자릿자릿함, 물컹거림, 스며거림, 따스함 등등이 백합의 내부에 축적된다는 것이다. 백합의 영광은 대지와 바람과 빛을 내부에 축적 혹은 수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백합은 유기체 수준에서 어떤 능동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백합은 이미 위대한 존재인 것이다. 100억 광년 떨어진, 우주의 어느 먼 별에 백합 한 송이가 피어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것이 보통일이겠는가?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의식 이전 유기체 수준에서 경험하고 보고 듣고 한 것들도 모두 우리 살에 어떤 형태로든 쌓인다. 우리는 눈으로도 세계를 흡입하여 살의 내부로 이동시키고, 입과 코로도 세계를 몸 안으로 끌어들인다. 음식을 먹고 공기를 마시는 게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유기체 수준의 응시 즉 무의식적 축적에서 인간적 수준의 응시 즉 의식적 수준의 수축과 축적에 이르면 인간의 사랑과 삶이 시작된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은 술, 안주, 그리고 술을 마시던 시간에 귀로 흡입한 동석자들의 목소리, 의자 밑을 지나가던 한 마리 개미, 그 공간에서의 소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계가 우리 몸의 명민한 감각과 뇌의 활동을 통해 수축된다. 사랑하는 이의 손을 만진 손은 이미 어떤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수축'의 영광은 국가체제에도 또한 역사라는 무형의 거대한 시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게는 국가나 체제보다 인민의 피와 살이 더 생생하게 다가왔다. 역사보다 길거리 한 구석에서 자라고 있는 풀이 더 절박하게 다가왔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과 목소리가 더 영광스럽게 다가왔다. 그 때 나의 몸은 나에게 의해 그렇게 운영되고 있었다. 「시간의 사건」, 「진화론」, 「영혼의 인간」, 「인내천」, 「영원한 시간」 「수축된 우주」 등의 시를 그 때 썼던 것 같다.

나의 고대(古代)는 빛이었다
거대한 번개와 함께 흩어진 기억들이
우주의 깜깜한 하늘에서 달려와
한 지점으로 수축될 때 나는 탄생하였다
나는 조립이 아니라 뜨거운 체온으로
꽃처럼 피어난 살이다

고대의 세속에서 나는
가녀린 박동이였다
피부가 느끼는 것보다 빨리 육신이 된 시간과
내부로 이동하는 물질의 소리들이 모여
입을 열고 말이 흐르기 시작했다
심장의 한가운데서 솟아오른 말은
나보다 일찍 죽은 아버지의 썩은 살에
물이 고이고 풀이 자라듯 거침없이 문장이 되었다

눈물이 비처럼 내리고
시간의 지배자는 시간의 밖에서
흐르는 빛을 오해할 때
나는 시간과 함께
목숨의 영원한 끝으로 가고 있었다
닥쳐온 겨울은 길었고 문장은
꽃가루와 발굴되기 위해 퇴적되었다

나의 고대는 내 속으로 사라진 빛
나로부터 떨어져 내게로 온 먼 시간에서
한 지점으로 수축된 우주다
나는 날마다 내 속에서 태초를 발굴한다

- 「수축된 우주」 전문

가족들의 울타리가 되어야했지만 한동안 나는 그러지 못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하면 엄살일지 몰라도 막상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정말 없었다. 임시 일자리라도 구하기 위해 뛰어다녔다. 늦은 여름 청량리 어느 학원 앞, 비를 맞고 서 있는 철근 콘크리트 벽을 보았다. 녹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가족에게 벽이 되지 못한 자괴감과 그래도 벽이어야 하는 의무감 사이에서 넋을 놓고 서 있는 나를 발견하였다. 그랬다.

벽은
소처럼 서서 빗속에 붉게 운다
안을 지키기 위해
밖을 건넌 것이다

눈물의 안은 무사하다

- 철근콘크리트 벽

20년 넘게 가졌던 직업을 잃고 세상에 알몸으로 던져진 것처럼 추웠다. 그리고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시선에 들어오는 모든 사물과 존재가 나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나를 둘러싼 세계 전체가 어떤 감정을 가진 존재로 다가왔고 나는 또 순순히 그것들을 맞이하여 미지근한 감상적 슬픔과는 다른, 차갑고 비릿한 것을 눈으로 맛보았다. 세계의 소리를 들었다.

바람이 제 살을 찢어 소리를 만들듯
그리운 건 다 상처에서 왔다

- 「상처」 전문

2교시 사랑을 기억하는 방식 - 현대시학

감각과 기억과 서사의 미시물리학

김주대의 새로운 시적 진경

유성호(문학평론가, 한양대 교수)

1.

김주대 신작시집 『오후에 나는 들킨다』(현대시학, 2014)는, 경험과 기억의 진정성이라는 수원(水源)에서 시작하여 시와 삶의 형식에 이르기까지, 두루 성찰의 계기를 부여하고 있는 거대하고도 역동적인 사유의 도록(圖錄)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의 시편은, 지난 시집들에서 보여준 가족사적 상처의 고백, 한 시대의 격정적 추억을 모두 넘어, 전혀 새로운 삶의 기율과 좌표를 세워가는 낭만적 의지로 가득하다. 그 점에서, 이번 시집은 그동안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세계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시 말하면 “험한 자조와 연민에 떨어지지 않고자, 어떤 높고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고자”(김사인) 애썼던 시간을 모두 지나, 김주대만의 진경(進境)을 펼친 세계라 할 만하다. 그럼으로써 그의 시편들은, 시가 정치적 기억의 방식으로서 일종의 반영론적 전제나 역사의식의 원근법을 지니기보다는, 순한 변형 형식을 통해 가장 일상적이고 언어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동시에 감각적인 세계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낭만적이고 감각적인 음역(音域)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눈길은 그의 지극히 짧은 시편들에 머물게 된다. 먼저 일행시라고 부를 수 있는 시편들을 읽어 보자.

깊어진다는 것은 언제든 몸 던질 수 있는 자기 안의 강물을 내려다보는 일

— 「고개 숙여」 전문

그립다는 말은 언어가 아니라 살이다

— 「지각의 현상학」 전문

보고 싶다는 말과 울먹인다는 말이 종일 동의어로구나

— 「오늘」 전문

눈으로만 들을 수 있는 말이 있다

— 「꽃」 전문

어머니의 온도를 상상하며 귀가 붉어지는 저녁이다

— 「귀 빠진 날」 전문

눈이 빨개지도록 울다 간 네 발소리로 가슴의 저녁이 물든다

— 「노을」 전문

꽃아, 내가 견딜 수 없는 나를 네가 견뎌다오

— 「꽃에게」 전문

마른 허공을 잡고 웃더니 꿈꾸던 색을 내려놓고 수직의 벽에 풍장 되었다

— 「겨울 담쟁이」 전문

시편 곳곳에 ‘쉬어가는 코너’처럼, 혹은 ‘숨겨진 뇌관’처럼, 깊은 침묵의 발화와 적극적인 수행적 발화를 동시에 꾀하는 이러한 일행의 호흡들은, 김주대 시편의 진원지를 다시 한 번 선연하게 보여준다. 이를테면 거기에는 ‘자기’, ‘말(언어)’, ‘어머니’, ‘너’, ‘그리움’, ‘울먹임’, ‘견딤’ 등의 키워드들이 그 모양새를 한결 단출하게 하면서 김주대 시편의 분명한 저류(底流)로서 흐르고 있다. 앞에 배치한 세 시편은 전형적인 ‘A=B’ 형식의 은유적 아포리즘을 지향하고 있고, 뒤의 다섯 시편은 김주대 특유의 관계론적 시선을 엿보게 해주는 진언들이다. 그 안에는 삶과 사물에 대한 감각적 포착과 형상화 그리고 시인의 해석안(眼)이 짧은 언어 속에 오롯이 숨겨져 있고, 그만큼 우리는 이 단단한 잠언들을 그냥 ‘쉬어가는 코너’로 여길 수 없게 된다. 그렇게 시인은 단형 실험을 통해 삶의 비의(秘義)로 직핍함으로써, 자신의 이러한 낭만적이고 절절한 상상과 표현을 완성해간다. 이러한 시도들은 짧은 산문 시편이나 2-3행쯤 되는 단형 시편으로 그 속성을 확장해가는데, 몇몇 짧은 시편들을 더 읽어보도록 하자.

산정의 어떤 나무는 바람 부는 쪽으로 모든 가지가 뻗어 있다. 근육과 뼈를 비틀어 제 몸에 바람을 새겨 놓은 것이다.

— 「사랑을 기억하는 방식」

새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

두고 온 제 무게를 그리워한다

— 「귀소(歸巢)」

몸은 말 이전의 말을 한다

거기에 닿기 위해 또 입을 놀려 말을 부린다

— 「아담의 말」

내가 아는 만큼의 당신이 내 속에 격리된다. 나는 당신을 가둔 감옥이다.

— 「얕」

자정이 넘도록 잠들지 못하고 곳곳하게 앉아 있다면

그 몸은 그대로 목청과 혀를 버린 어떤 말일 터

— 「말」

이러한 사유와 표현들은 그동안 김주대 시학이 건너온 심연을 멀찍이 비껴서면서 그가 다르고자 하는 새로운 삶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근육과 뼈를 비틀어 제 몸에 바람을 새겨 놓은 것”으로서의 사랑, “제 무게”에 대한 그리움, “말 이전의 말”, “내가 아는 만큼의 당신” 같은 김주대만의 이디엄들이 역시 빼곡하고도 느린하게 펼쳐져 있다. 시인은 단형의 그릇에 자신만의 순간적이고도 응축된 사유의 결을 풀어놓아 하나의 의미론을 구성하고 명명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경험과 감각이 멀리 에둘러가서 닿을 수 있는 깊은 심연으로서

의 짧은 직조술(織造術)은, 이번 시집에서 특별히 김주대 시학의 근간으로서 유감없이 그 가치를 드러낸다. 우리는 오늘 그 세계를 ‘시의 연금술’이라 달리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이번 시집의 확연한 외관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촌철의 단형에 핵심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 깊이 기억할 만하다.

2.

우리가 잘 알듯이, 서정시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창작 동기는 시인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하는 회귀와 관조의 욕망에 있을 것이다. 이를 일러 일차적으로는 ‘나르시시즘’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물론 그것은 자기애(自己愛)를 중심축으로 하면서도, 자신을 대상화하여 반성적 성찰을 수행하는 역동적인 사유와 실천을 아우르는 것으로 진화해간다. 그만큼 시인들은 일차적으로는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되새기고, 나아가 그 시간에 독자적 성찰의 몫을 개성적 의미론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때 ‘시간’이 남긴 흔적들이야말로 시인이 추구해마지 않는 직접적 생의 형식이 될 터이고, 그 점에서 모든 서정시는 ‘시간’을 포착하고 해석하는 일종의 시간 예술이 아닐 수 없다.

그 점에서 김주대 시편들은 젊은 날을 생의 뒀안길로 보내면서 지나온 시간을 응시하고 반추하는 전형적인 ‘시간 예술’로서의 서정시 권역에 속하면서, 소중한 자기 성찰의 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깊은 응시와 반추는 가장 진솔하고 직접적인 자기 토로와 함께, 자기 성찰의 깊이와 진정성을 결속함으로써 그 배타적인 위의(威儀)를 드러낸다. 우리 시단에서도 매우 드문, 이러한 걱정과 성찰의 결속 과정을, 우리는 김주대 시편에서 새삼 선명하고도 돌출하게 바라보게 된다.

바람이 허공에 새겨놓은 문자를
읽을 수 있게 되리라
살이었던 욕심을 남김없이 내려놓고
신의 발을 무사히 만질 수 있도록
영혼에서 살이 빠져나가는 시간
바람의 지문을 영혼에 새기는 일이다
넘치던 말들과 형상을 보내고
허공에 섬세하게 깃들게 되리라
꽃잎처럼 얇은 고막이 되어
지평선에 누우면
별들의 발소리가 들리겠지
살을 버린 이성은 비로소 천상을 흐느낄 것이고
혀가 된 푸른 바람이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 때에도 우리는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 「풍장」 전문

‘풍장’이란 시신을 태워 뼈를 추린 후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바람에 날리는 장사법이다. 그런데 시인은 그 풍장의 순간에 “바람이 허공에 새겨놓은 문자”를 읽고 있다. 그때 ‘살/욕심/말/형상’의 계열체들은 남김없이 사라지고, ‘신의 발/영혼/지문/문자’는 섬세하게 남는다.

“찬 바람 속에/침묵의 뼈대”(「세한도」)가 남은 것처럼 그것들은 견고하고 순수한 잔여로 몸을 드러낸다. 지평선에 누워 별들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살을 버린 이성”은 이제 비로소 “혀가 된 푸른 바람”이 되어 “사랑한다고/사랑한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시인은 ‘살’을 버리고 ‘뼈’의 본질만 남은 형상을 통해, 항구적 시간 속에서 지속될 ‘사랑’을 노래한다. 여기서 “혀가 된 푸른 바람”은 비로소 육신의 감옥을 나와 자유로운 영혼으로 몸을 바꾼 진정한 ‘사랑의 말’에 이르는 형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선이 바로 “사랑의 지극이 고독의 지극”(「저희끼리」)이라든지 “사랑을 잃고 낮술에 취해 비틀거릴 때 들려오던 비명 같던 그 냄새”(「냄새의 인간」) 같은 표현을 그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온몸의 감각으로 수행하는 그의 ‘사랑’ 시학은 다음에도 계속된다.

아지랑이처럼 타는 끝으로
한 사람을 보낸 적이 있다
한 점 열기가 되는 위태로움으로
길의 끝을 끌어안고
뭍은 소실점에 나를 푼다
사진에 입술을 대듯
지나간 너를 그리며
잊었으나 잊지 못한 사람처럼 불러본다
한 점
열기를 잡고 쪼그려 앉으면
너는 비 온 아침 그늘처럼
서늘히 번져 온다
바람이 통과하는 지점에 우뚝하게 서서
너를 두고 언제나 하루만 살겠다
— 「한 점」 전문

시편 제목인 ‘한 점’은 사랑이 사라져가는 “뭍은 소실점”을 뜻한다. 거기에는 “아지랑이처럼 타는 끝”과 “열기가 되는 위태로움”이 있다. 그곳으로 떠나보낸 “한 사람”의 형상은, 아지랑이처럼, 비온 아침 그늘처럼, 서서히 그 모습을 시편 안에서 번져가게 한다. 그리고 그는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점/열기”를 시인에게 종내 허락한다. 그러니 바람처럼 사라져간 그를 두고 언제나 하루만 살겠다는 다짐이야말로, ‘기다림=삶’이라는 존재 방식을 보여주는 시인만의 발상법이 되지 않는가. 이처럼 김주대 ‘사랑’ 시학은 상처를 전혀 과장하지 않으면서, 그리움과 기다림이라는 영속적인 결여 상태를 자기 본질로 삼고 있다. 그렇게 “우리의 그리움은 언제나 광속을 넘는다/우리가 늙지 않는 이유이다”(「특수상대성」)라면서 그는 “사랑아,/나는 너로 도배된 방/너만 써놓은 벽에서/까치발을 하고 뜯 눈으로 너를 기다리는/창문이다”(「방」)라고 노래한다.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으로 자신을 역투사하는 전형적인 회귀의 방식으로 진정한 ‘한 점’ 시간에 가 닿는 것이다.

울음이 돌이 되는 느린 시간이 내려오고 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올려야 서로의 평온에 닿을 수 있을까
동굴은 인류가 묻어 둔 눈물의 묘지
사랑도 그래서 한 방울 눈물에서 시작하여 서로에게 이르자고
혈관에 뼈가 서는 시간이다

어둠을 짙으며 고요히 우는 간격이다
— 「종유석과 석순」 전문

동굴 천장에 매달린 ‘종유석’과 동굴 바닥에서 자란 ‘석순’을 사랑의 양대 주체로 설정한 이 시편은, “울음이 돌이 되는 느린 시간”이야말로 ‘기도’와 ‘평온’을 통해 서로에게 가 닿는 호환할 수 없는 ‘사랑’의 형식이라고 말한다. “인류가 묻어 둔 눈물의 묘지”는 그렇게 “한 방울 눈물에서 시작하여 서로에게 이르자고/혈관에 빠져 서는 시간”을 통해 ‘사랑’을 완성하게 된다. 그들 사이에 있는 “어둠을 짙으며 고요히 우는 간격”은 바로 그들의 사랑을 온전하게 가능하게 한 방법론이었던 셈이다.

이처럼 김주대 시편은, 역동적인 동화와 투사의 방법을 통해, 인간이 서로 공유하는 정서적, 의지적 지향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것이 ‘사랑’임을 가차없이 노래하는 세계이다. 그의 ‘사랑’ 시편들은, 결핍의 상황에 처한 자신을 스스로 위무하면서 역설적인 삶의 영속성을 찾아준다. 그리고 그것은 상실감과 그리움을 정서적으로 공유하는 이들을 향해 가장 깊은 생의 원리를 암시해준다. 그 점에서 진한 감상성과 결별하면서도 낭만적 진정성을 가득 보여주는 그의 ‘사랑’ 시학은, 우리에게 더없는 공감과 치유의 순간을 선사해주는 것이다.

3.

두루 알다시피, 서정시는 ‘시간’에 대한 경험과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양식적 특성을 지닌다. 김주대 시편은 서정시의 이러한 제일의적 속성을 두루 충족하면서, 시간의 다양한 내적 형식을 통해 삶의 근원과 궁극에 대한 상상적 경험을 부여해준다. 그의 시편들이 환기하는 이러한 ‘시간’ 형식은, 그 안에 시인 자신의 기억을 줄곧 담아내는데, 여기서 ‘기억’이란 동일성의 감각에 의해 발원되고 구축되는 시적 언어의 한 구성 원리라 할 것이다. 이렇듯 시인은 사물을 해석하고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사물의 이면에 존재하는 오랜 ‘시간’의 파동을 세밀하게 포착하여, 그것을 순간적 ‘기억’의 형식으로 복원해내는 일관성을 보여준다. 그 점에서 그는 현실을 찰진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서사 총동을 순간적 정념과 이미지로 옮기는 시인에 훨씬 근접한다. 그렇게 ‘기억’과 ‘서사’가 총일하게 결합한 그의 시편들은 그 점에서 삶의 반영체이자 생의 이면사로 혼연하게 다가온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 무덤에서 나이가 멈추었을 것이다
이제 아버지 나이를 거의 따라잡았다
바람 불고 외로운 아버지 외롭지 않게 친구가 될 수도 있겠다
— 「아버지」 전문

지난 시집들에서 곡진한 가족사를 풀어 보여주었던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그것들의 잔여를 말끔히 거두고 새로운 기억과 열정을 구축하는 품을 보여준다. 다만 이 시편 속에서 시인은 ‘아버지’를 통해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과정을 형상화함으로써 가거의 기억을 거두어낸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무덤에서 나이가 멈추었을 것”이고, 자신의 나이는 그때 아버지를 거의 따라잡았으니, 이제 자신이 “바람 불고 외로운 아버지”의 친구가 될 수 있겠다고 노래하는 시인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잔함의 ‘시간’ 해석이 담겨 있다.

이로써 시인은 우리가 세계내적 존재로서 상호 연관성을 맺고 살아감을 노래하는 한편으로, 그 눈부신 비애의 순간을 통해 삶의 깊이와 역동성을 풍부하게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부패하지 않는 기억”(「메소사우르스 화석」)으로 살아오시는 아버지의 흔적은, “어머니 주름 많은 손등이 소리를”(「상봉」) 내는 것처럼 가녀리고 견고하게 시인의 기억을 구성하고 또 삶을 이어가게 하는 원형적 에너지가 되고 있다. 다음은 그러한 ‘사랑’이 타자들을 향해 아득하게 번져간 심미적 소품이라 할 것이다.

눈가 젖은 여자가 이른 아침 우는 아이를 안고
 수레와 함께 어린이집 앞에 서 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나와서 아이를 받아 안자
 선생님의 목을 끌어안고 더 크게 우는 아이
 여자는 젖은 눈으로 웃으며
 어서 들어가시라고 선생님께 손짓한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따라 길게 들어간다
 돌아서는 여자의 발바닥은
 아이의 울음소리에 자석처럼 붙어서
 떨어지질 않는다
 수레를 잡은 여자의 푸른 손등에 아이의
 희미해진 울음소리가 눈물방울처럼 떨어지자
 수레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만 가자고
 — 「그만」 전문

우리는 개인적 기억의 구성과 표현을 통해서도 삶의 복잡성과 신비로움을 내밀하고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편재하는 모순과 억압을 응시하면서, 그것들이 시대를 달리하면서도 끈질긴 생존력으로 우리 사회를 여전히 감싸고 있음을 증언하는 김주대 시편들은, 그 점에서 개별적이고 순간적인 형상을 통해 삶의 지속적인 복잡성을 암시하는 기능을 한다.

이 시편에는 고단한 일상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이 구체적 형상과 시간을 몸에 두르고 등장한다. 여기서 ‘수레’와 함께 이른 아침에 어린이집에 와서 아이를 맡기는 “눈가 젖은 여자”는, 하루 노동으로 삶을 이어가는 우리 이웃들의 한 전형일 것이다. 여자는 “젖은 눈”으로 아이를 향해 웃으며 돌아서지만, 돌아서는 발바닥과 아이의 울음소리가 서로 붙어 떨어질 줄 모른다. “그만 가자고” 하면서 움직이는 ‘수레’는 그렇게 서로 붙어 있는 것들을 떼어내면서, 삶의 고단함과 구체성으로 옮겨가는 순간을 암호처럼 명명한다. ‘그만’이라는 말이 가지는 ‘정지(停止)’와 ‘이제는’이라는 두 가지 뜻이 그러한 애뜻함을 더없이 강조해준다. 더 나아가 시인은 「혹은,」 같은 작품에서도 한 사내의 비극적 생애를 “혹은 우리들의 생”으로 등치시키는 아린 정성도 보여주었고, “살아서 돌아오라고 벗어 준/그대 울음”(「이현상」) 같은 역사적 캐릭터나 “까마득히 신의 손가락에 걸었던 알 수 없는 약속 하나를 완수하기 위해”(「등정(登頂)」) 높이 오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의 어린 기억들도 풀어 보여준다. 이는 모두 김주대 시편의 ‘기억’이 사적인 계기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적인 기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실물적 사례들일 것이다. 가장 정치적인 동시에 감각적인 김주대 시편의 실재들인 것이다.

이처럼 김주대 시인은 현실과 주체의 상호 반응을 기록하면서 거기서 빛어지는 삶의 비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이어지는 삶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다. 그럼으로써 그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궁극적 긍정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반영(묘사)과 생산(표현)의 복합체로서의 서정을 통해 “생을 끝까지 밀고 간 자리마다/너무 커서 들리지 않는 몸의 말들”(「암흑물질」)을 기록하면서, “얼 수 있는 자유만이 무료인 공화국 한쪽에” 버려진 “시벨건 부속(附屬)들”(「노숙자 - 서울 2014년 겨울」)을 따뜻하고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다. 충분히 아프고 아름다운 그의 시편이 펼쳐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4.

그런가 하면 김주대 시편은, 감각의 형식으로 스스로를 실현하며 존재하는 운동체이기도 하다. 그의 시는 지난날의 비애를 심미적 감각의 형식으로 정성스레 담아내면서, 그 스스로도 배타적인 감각의 형식이 되고 있는 독특한 실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결벽에 가까운 조탁과 감상성 배제를 동반한 단정한 감각에 의해 가능한 세계이다. “뺏속으로 파도가 지나가는 서늘한 감각”(「해식동굴」)까지 확인하고 섭렵하는 그의 시편들이 한결같이 견고하고 밀도 있는 전언을 보여주는 것도, 이러한 그만의 ‘감각의 형식’ 때문일 것이다. 그 안에는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상상적 복원 의지가 담겨 있고, 세상의 속도와 새것을 향한 짓눌림에 의해 지워졌던 인간의 실존과 운명의 표정을 날날이 형상화하려는 그만의 장인의식이 숨쉬고 있다. 결국 그것은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인은 그 관심을 통해 새롭게 가다듬어 가야 할 정신과 기율로서의 시를 꾸준히 써가는 것이다.

너무 먼 어제로부터 여기까지 와서
 돌아누울 때마다 문신처럼 새겨지는 기억들 앞에 속수무책이다
 내가 본 것을 사람들도 보았을까
 내가 본 것 때문에 다른 내가 되어서
 내가 들은 것 때문에 다른 노래를 부르며
 열꽃 피는 몸 안에 수장되려나
 육신의 병과 함께 시간의 깊이에 도달하려던 어리석음이
 갈 수 없는 곳에 닿을 때마다 흘러나오는 신음
 뒤척이면 불 같은 열 번진다
 평화로운 애비가 되지 못한 죄로 악몽을 꾸다
 깨어 젖은 몸을 내려다본다
 강가 나뭇가지에 걸린 시신처럼 부은 몸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이 시반을 만든다
 손끝이 떨린다
 너무 먼 어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기억을 입은 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오랜 시간까지 내려가
 식은땀 쪽으로 돌아눕는다
 — 「생물 시간」 전문

여기 날카롭게 재현되는 감각은, 일차적으로는 ‘생물 시간’이라는 분명하고도 일회적인 시간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마치 “너무 먼 어제로부터 여기까지 와서/돌아누울 때마다 문신처럼 새겨지는 기억들”같이 반복적이고 점층적인 에너지를 내장한 보편적 생의 원리이기도 하다.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본 것/내가 들은 것”은 모두 “다른 노래”로 나아가 “시간의 깊이”에 도달하려는 열정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갈 수 없는 곳에 닿을 때마다 흘러나오는 신음”처럼 시인은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을 세어보는데, 그렇게 “기억을 입은 몸”으로 시인은 오랜 시간의 밑바닥까지 내려간다. 이때 우리는 “몸이 다 젖도록 시를 받아들이는”(「완전한 소통」) 시인의 참모습을 발견하면서 그가 “문자로 세상에 온 한 사람이 해독하기 힘든 의미로 살다가 문자처럼 지워졌다고 또 다른 문자가 기록해 줄”(「시인」) 마음의 소유자임을 알게 된다. 그러니 ‘생물 시간’은 그 자체로 ‘시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씌어진 “험한 길 천 리 벼랑을 타고 와/어둠을 내려치고 떠난 절명시 한 수”(「섬전암(閃電巖)」)야말로 김주대가 가 닿으려는 궁극의 언어일 것이다. “시만 쓰다 죽어 바람도 불꽃도 되지 못하면”(「생물학」) 아무 것도 아닌 생애처럼, 김주대는 “대지를 시커멓게 쓸고 지나가던 바람이 봄이 되면/풍경의 끝에 붉은 꽃 한 송이를 낙관처럼 찍어놓는”(「문인화」) 것처럼 시를 쓰고, “아이처럼 울다 간 노래는 언제나 세상을 홀로 걸어다닌 나의 풍습”(「나의 노래는」)인 것처럼 자신의 ‘노래=시’가 지상에 남을 것임을 힘주어 고백하는 것이다.

쫓그려 앉아 귀를 세우고
 아주 멀리서 왔으므로 무척 작아진 소리를 듣는다
 새싹은 하나의 이념
 가장 깊이 이르러서
 가장 얇은 곳으로 올 줄 아는 이의 약속이다
 우주 이래, 지구 이후
 흘러온 기억의 개화
 우주에서 음표 하나가 빠져나와
 이토록 작고 푸르다
 불가사의는 하찮게 실현되고 이념은 클수록 소박하다
 햇볕 속에 단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고
 음악으로 돌아간다
 — 「화엄경」 전문

‘화엄경’은 부처의 가르침을 훌륭하게 드러낸 작품으로 간주되어온 방대한 분량의 대승불교 경전이다. 그런데 시인은 그 ‘화엄경’의 진언과 줄거리를, “아주 멀리서 왔으므로 무척 작아진 소리” 속에서, 쫓그려 앉아 귀를 세우고 듣고 있다. 가령 그에 의하면, 가장 깊이 이르러 가장 얇은 곳으로 오는 이의 약속처럼, 우주론적 스케일의 “기억의 개화”는 작고 푸른 ‘음악’으로 결국 귀속되는 것이다. 일찍이 페이터(W. Pater)는 “모든 예술은 음악의 상태를 동경한다.”라고 말했거니와, 결국 김주대 시편도 “햇볕 속에 단 하나의 세계를 건설”한 후 궁극적인 ‘음악’으로 돌아가려는 의지를 통해 ‘화엄경’의 의미론을 완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 안에는 “왜소한 한 인간의 슬픔이 자연으로 거대해지는”(「확장되다」) 순연한 감각의 전화(轉化) 과정이 있고, “철조망 둘러진 허공이 오선지 같다/새 한 마리 음표처럼 앉아있다 //음악이 시작되려나”(「임진각에서」)에서처럼 ‘음악’에 대한 시인의 예민한 의식이 오롯하게 담겨 있다.

감빔한 벽 안에 고막 같은 목숨을 걸어놓고
 외로운 영혼이 북처럼 울 때
 울음은 빛이 가지 못하는 길을 가서
 떨며 벽을 통과한다
 어둠을 뚫고 어둠 너머에 공명하는 울음
 흐느끼는 소리 좁은 어깨가
 벽을 넘어 사무친다
 — 「울음의 물리학」 전문

‘울음’이라는 감각은 “감빔한 벽” 안에 목숨을 걸어놓고 그 ‘벽’을 통과하는 “외로운 영혼”을 북처럼 울린다. 그렇게 ‘울음’은 “빛이 가지 못하는 길”을 지나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을 뚫고 어둠 너머에 공명하는 울음”에 가 닿게 한다. 이처럼 ‘울음의 물리학’은 ‘벽’을 넘어 ‘어둠’을 넘어 새롭게 열리는 삶의 한 중심으로 차츰 번져간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둠을 치고 간 비애”(「눈길」)들도 그 어둠의 힘에 의하여 하나하나 지워져갈 것임을 알게 된다. 이렇듯 김주대 시편들은, 생의 활력을 노래할 때는 세련되고도 걱정적인 감각을 품고 있고, 비애나 통증을 담아낼 때는 매우 구체적 실감들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 점에서 그는 우리 서정시의 감각과 사유에서 새로운 진경을 확연하게 일구어낸 것이다.

5.

우리는 이번 김주대의 신작시집을 통해 ‘시’가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시간의 심급들을 경험하였다. 그만큼 이 시집은 감각과 기억과 서사를 시적 근간으로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의 시간을 다양하고도 심층적으로 경험케 하는 유력한 시적 실재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심급들이 우리 삶을 관통하는 구체성의 실재적 재현과 해석에 토대를 두면서, 동시에 시인 개인의 삶에 얽힌 상처를 넘어서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수한 서정시는 자신의 반대편에서 그 뒷모습을 안타까움과 투명성으로 바라볼 줄 아는 자기 성찰의 품을 가지고 있다. 뒷모습을 은폐하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어 자신의 온몸으로 견뎌내는 일, 곧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내부에 확산되어가는 속물 의식에 대한 반성적 의식이야말로 서정시의 가장 위대하고 고유한 몫일 것이다. 김주대의 시세계는 그러한 성찰의 힘에 의한 가능성으로 충만하다는 점에서, 서정시의 으뜸 형질을 구현하였고, 시인은 그 힘을 통해 지난했던 ‘추억’의 시간을 지나 더 넓은 ‘세상’의 시간으로 나아온 것이다.

그리고 보니 시집 말미에서 시인은 “시집 발간에 도움을 주신 분들. 눈물을 호명합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시집의 상재 배경에 동시대 이웃들 간의 남다른 협업과 상호 돌봄이 있었음을 알린다. 그야말로 “서로에게로 사라지는 서로를 향해 살의 마지막 한 점까지 옮기는 의식”(「애무하다」)을 보여준 것이다. 이처럼 남다른 감각과 기억과 서사의 미시물리학을 보여준 김주대의 이번 시집은 그 낭만적 진정성과 열의로 우리 시단을 출렁이게 할 것이다. 참으로 아름답고 애잔하고 가멸차지 않은가.